

삼성전자 노조의 '탐욕'



이정혁
西村브리핑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을 철폐하고 수십조 원의 이익을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공공의 이익을 망각한 치명적인 탐욕에 다름없다”로 시작된 이메일은 건설 현장의 거친 먼지 속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보내온 것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생존과 경제 성장 입장에서 노조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걱정과 고언이 섞여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전자 성과급 잔치 논란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안긴다는 차원에서 지인이 보내온 편지 전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호령하며 대규모 이익을 내기까지, 그것이 과연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만의 공로일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

업의 결실은 단순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경영인의 결단과 국민의 지원,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의 희생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고통 속에서 단행된 강제 합병, 위기의 순간마다 투입된 국민의 소중한 혈세, 그리고 이병철, 이근희, 정주영, 구본무, 최중현 회장 같은 선각자적 경영인들이 보여준 ‘사업보국’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밤낮을 잇고 연구실을 지키고 과학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며 대기업을 뒷받침해온 수많은 협력사의 눈물이 지금의 이익을 만든 진정한 밑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결실을 자기들끼리의 ‘성과 잔치’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최근의 성과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적 성원과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협력사들의 희생이 응집된 결과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일구어낸 것처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배신 행위다.

지금 우리 경제의 다른 한 축인 건설업계를 바라.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

인해왔으나, 현재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이 힘든 국면을 견디며 묵묵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노조의 몰염치한 요구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산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건설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반도체의 선전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성장률이 1.7%로 반등했다. 이 귀중한 수익은 특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 상당 부분은 미래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산업 저변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고통받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제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조는 이기적인 투쟁을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민하며 공동체에 헌신해야 할 때다. 사악한 탐욕으로 무장한 노조는 입을 다물고, 진정으로 국가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한 길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ljh@metroseoul.co.kr

AI 활용은 늘었는데 일손은 그대로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 최근 기업들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표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산하면서 기획서 작성, 번역, 고객 응대, 코딩, 콘텐츠 제작까지 AI 활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진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AI를 써도 일손은 줄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분명 AI는 강력한 도구다. 초안 작성 속도는 빨라졌고 반복 업무 부담도 줄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검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생성형 AI 특유의 ‘그럴듯한 오류’도 문제다. 틀린 정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여전히 반복된다. 결국 실무자는 AI가 작성한 문장과 데이터, 출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AI가 대신 일한다”기보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에 가까운 셈이다.

업무 강도 역시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AI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지자 기업들은 더 많은 결과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과거 하루에 하나 만들던 보고서를 이제는 여러 개 처리하고, 콘텐츠 역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업무 기대치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특히 콘텐츠 업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 개발자는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는 만큼 더 빠른 개발 속도를 요구받고, 기자와 마케터 역시 AI를 활용

해 더 많은 결과물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효율화가 곧 노동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AI 도입 자체를 성과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보다 “우리도 AI를 쓴다”는 상징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I가 업무 혁신 도구인지, 단순한 비용 절감 압박 수단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 산업 전반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 도입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게 현장에 들어왔다. 이제는 “무엇을 더 자동화할 것인가”보다 “사람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고 있는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vitn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 (음 3월 22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72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러 하지 마세요. **84년생**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9년생** 반드시 간절히 꿈이 이루어집니다. **61년생** 항상 사소한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73년생** 기본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50년생** 모든 일이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62년생** 정상계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74년생**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습니다.
- 51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게 됩니다. **63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5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7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 52년생** 큰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76년생** 꾸준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88년생** 모든일이 막힘 없이 술술 풀립니다.
- 53년생** 새로운 삶을 차분히 계획합니다. **65년생** 너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77년생** 수양을 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장래를 생각해 신중히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4년생**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66년생** 되도록 외지로 나가 마세요. **78년생**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90년생** 좋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 55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7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79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91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 56년생** 남의 귀한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68년생** 오늘은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9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 57년생** 남의 소중한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81년생**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93년생** 어려움이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 58년생**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때입니다. **70년생** 먼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사업을 성급히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지금 시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 59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71년생** 본인의 의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공짜는 한번 더 생각하고 얻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차가운 것을 주의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감사라는 약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했다. 평화롭게 지내는 쥐들이 있는 곳에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는데, 고양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쥐들의 몸을 살펴보니 쥐들의 위장에는 피멍이 들었고 심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쥐들은 공포와 긴장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는 결론이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또 하나의 실험이 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모아 액체를 만든 뒤, 이것을 쥐에게 주사했다니 쥐는 몇 분 만에 발작을 일으키고 죽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압에 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는 것에 의사나 학자들이 동의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는 암세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인간들의 타고난 숙명이어서 석가 모니는 생로병사의 사고(四苦)라 지적했지만, 존재로서의 인간살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벗어나지 못하면 즐기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인 한스 셀리는 고별 강연 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였다고 한다. “감사입니다.”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다. 복잡한 마음의 병에 대해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듣기는 들었어도 실천은 멀다. 장수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태도를 지녔다니 화날 일이 적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8		3
	7		5	6	2
		5		7 3	
6	1	4			7
	5				9
9				4	1 6
		6 5			1
	4		1 9		6
5		6		1	4

9	7	8	6	2	3
6	1	4		7	
2					4
4	3		8		
	8			4	
		5		3	8
3					2
	7		4	5	6
5	6	3	2	9	1

7	8	1	8	9	6	2	9
9	9	2	6	1	7	8	
6	8	1	2	7	9	8	2
9	1	7	9	1	6	2	8
2	6	9	7	1	8	9	8
2	8	9	6	8	2	7	1
8	7	8	2	6	9	9	1
1	2	6	9	9	8	2	7
8	9	2	8	9	7	1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